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스

호남 공들이는 정청래·김민석... 텃밭서 미래 당권 경쟁?

거대 여당 당권 장악을 위한 대표주자들의 광복 행보가 텃밭 광주·전남에서 맞불전략으로 이어지면서 당권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호남 겨냥 경쟁이 공교롭게(?)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내 경선의 중요골목까지 재현되면서 당권 경쟁과 함께 계파 대결 분위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잇따라 광주·전남을 찾아 산업과 의료, 민생 현장을 돌며 호남 겨냥 행보에 나설 계정이 다.

후일인 지난 5일, 나란히 광주를 찾은 지 1주일도 채 안된 재방문이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를 이끌고 1박2일간 광주와 전남 곳곳으로 누빌 계획이다.

후일 광주 방문 1주일도 안돼 나란히 광주·전남행 열차 전당대회 당심 잡기용, 통합시장 선거 계파경쟁 해석도

첫날 광양제철소 간담회를 통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여수 서시장과 광주 양동 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피고, 프로야구 야간경기도 관람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조국혁신당이 군수로 재직중인 전남 담양의 창평전통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광주를 찾아 지역 의료 체계를 챙길 계획이다.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차례로 둘러볼 예정이다.

그런 다음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재 정부

가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 사업 평가를 겸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보름 간격으로 광주를 찾아 현장최고위 회의와 K-국정 설명회를 통해 '텃밭 보듬기'에 나선 바 있다.

나란히 4선(選) 의원으로 차기 당권·대권 주자로까지 분류되는 두 인사의 호남 공들이기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의 지지 기반, 즉 집토끼 단속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주와 전남 권리당원은 32만명으로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다. 가깝게는 6월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 멀게는 202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선거에서 당의 심장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특히, 방문시점이 통합특별시장 당내 본격선 마지막날과 결선투표를 D-3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계파간 역학관계를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6선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의 방문과도 맞물려 민주당내 진명, 친청 진영간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조직화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전당대회,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친명-친청 간 사활을 건 한 판 승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광주·전남 최대 76.5mm 비

교통사고·가로수 쓰러짐 잇달아

광주와 전남에 최대 76.5mm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록된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장흥 관산 76.5mm, 진도 62.5mm, 해남 62mm, 신안 61mm, 강진 60mm, 함평 13.5mm, 광주 13.1mm, 무안 12mm, 장성 9.5mm 등이다.

시간당 강수량은 강진 22mm(오후 2시) 완도 21.4mm(오후 2시) 등으로 집계됐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 곳곳에서는 빗길 교통사고 등이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41분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67)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앞서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자 이를 피하려다 갓길에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겪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58분 나주시 산포면에서도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변 연석을 들이받았다. B씨도 경상을 입어 이송됐다.

비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이어졌다.

오후 1시17분 무안군 청계면에서는 도로 표지판이 강풍에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낮 12시57분 영암군 군서면에서는 가로수 쓰러짐 신고가 접수됐다. 낮 12시24분 광양시 광양읍 세풍지하차도에서는 물이 들어찬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강한 비바람에 전남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전남 지역 51개 항로 78척 중 18개 항로 22척의 발이 묶였다. 광주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7편과 여수에서 김포 및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5편도 결항했다.

현재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 다도해 등 국립공원 탐방로도 전면 또는 일부 통제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오는 지역은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를 이용할 경우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광훈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누리집 주소, 국민이 정한다

30일까지 7개 후보 대상 온라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통합특별시장 출범에 앞서 누리집 주소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누리집 주소는 통합특별시장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국민 인식을 반영해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누리집 주소 후보는 ▲두 지역명을 모두 표기한 'jeonnamgwangju.go.kr', 'jeonnam-gwangju.go.kr' ▲앞 글자를 조합한 'jngi.go.kr', 'jn-gj.go.kr', 'jg.go.kr', ▲통합 의미를 강조한 'jgunion.go.kr' ▲하나의 도시 개념을 담은 'jgcity.go.kr' 총 7개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3주간은

라인 설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7개 후보 중 가장 선호하는 주소 1개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전남도과 광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집 주소를 확정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과 함께 서비스할 임시 누리집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용 전남도 대변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정체성을 담은 누리집 주소 선정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원 기자

건축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외벽 청소

유리창 드론 청소

태양광 패널 청소

공장 외벽 청소

태양광 패널 청소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대상 : 아파트(준공형/관리·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내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푸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을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시의 독창적인 푸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을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180, 1층 101호

유한드론솔루션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